

예을 포럼

社稷壇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사직단 복원과 활용을 위한 제안

예올 포럼

社稷壇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사직단 복원과 활용을 위한 제안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주관 : 예올

차례

발제Ⅰ	사직단 일곽의 시기적 변천과 그 성격_____	07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발제Ⅱ	사직단 제례의 과거와 현재_____	23
	김문식 교수/단국대 사학과	
발제Ⅲ	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적 기획과 전략_____	33
	조경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토론	사회 : 김성우 교수 토론 : 송인호 교수/홍찬식 논설위원/로버트 파우저 교수/임희지 박사	
토론Ⅰ	송인호 교수/서울학연구소 소장_____	46
토론Ⅱ	홍찬식 수석논설위원/동아일보_____	48
토론Ⅲ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_____	50

발제 I 사직단 일곽의 시기적 변천과 그 성격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사직단 일곽의 시기적 변천과 그 성격

1. 조선시대, 국가 제례시설 사직단의 설립과 운영

사직단은 조선 건국에 이은 한양 도성의 건설과정에서 종묘, 궁전, 조시(朝市), 도로 등과 함께 계획되었다.¹⁾ 즉, 사직단은 도성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의 하나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사직단에 대한 축조 계획은 태조 2년(1393)과²⁾ 3년(1394)경에 이루어졌으며,³⁾ 태조 4년(1395)에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⁴⁾ 이 때 조성된 사직단은 영조척(營造尺)으로 2장 5척 사방의 단(壇)과 함께 4면의 문과 담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을 둘러싼 낮은 담인 유(壘)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척(周尺)이 아닌 영조척으로 한 것은 단의 크기를 크게 하여 찬기(饌器)를 수용하게 하기 위함이고, 유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예를 좇은 것이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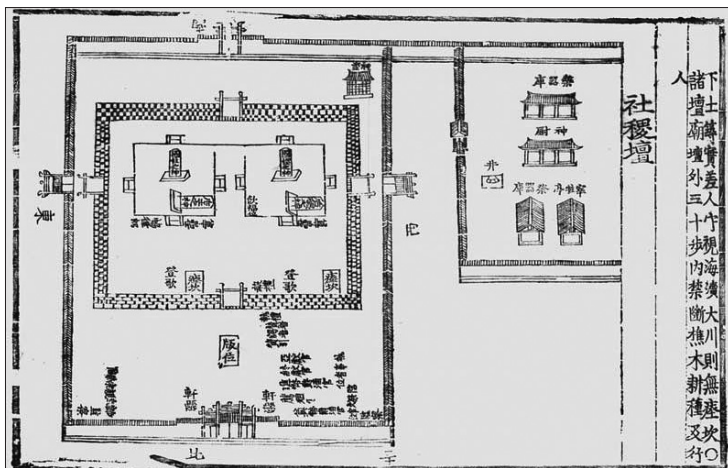
이후 정종의 개경 환도와 태종의 한양 재천도의 와중에도 사직단의 신주 이동은 없었으며,⁶⁾ 오히려 재천도의 주요한 빌미를 제공하였다.⁷⁾ 태종 7년(1406)에는 사직단의 보수·정비 및 담장과 재실 조성 공사가 개시되었다.⁸⁾ 이듬해 완공을 앞두고 가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⁹⁾ 태종 15년(1414)에 사직단의 단(壇)과 유(壘), 담장 공사가 재개되었다. 유의 크기는 한 변이 25보(步) 즉, 150척이 되게 하였으며 이는 송(宋)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¹⁰⁾ 한편, 태종 14년(1413)에는 신위 보관을 위한 재실(齋室) 건립이 논의되었고¹¹⁾ 태종 17년(1416)에 설치되었다.¹²⁾ 태종대에는 각 지방의 고을에도 사직단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¹³⁾ 사직 제사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중 제일 등급인 대사(大祀)로 지정되었다.¹⁴⁾

세종 9년(1426)에는 사직단을 승격하여 사직서(社稷署)로 하고, 종 7품의 승(丞)을 두어 종묘서(宗廟署)의 승 아래에 서열 시켰다.¹⁵⁾ 하지만 앞선 세종 4년(1422) 태종의 승하 시에는 졸곡 때까지 모든 제사를 정지하고 오직 사직 제사에 대해서만 유지하였는데,¹⁶⁾ 이는 사직을 종묘보다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자연신인 토지신과 곡신을 모시는 사직은 선왕을 모시는 종묘에 비하여 의미상으로는 상위에 있으나, 현실적인 제사의 규모와 국왕의 관심은 종묘에 뒤지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세종14년(1432)에는 제례 전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유(壇壝)의 높이와 너비, 간격을 조정하는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다.¹⁷⁾

문종1년(1451)에는 사직서에 도제조와 제조를 두고,¹⁸⁾ 또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였다.¹⁹⁾ 성종대(1469-1494)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종2년(1471)에는 의식이 끝난 뒤 폐백과 축판 등을 묻는 구덩이인 감(坎)의 위치를 담 안쪽으로 변경하였고,²⁰⁾ 성종21년(1491)에는 제기고를 증축하였다.²¹⁾ 성종25년(1494)에는 임금의 지시로 사직단의 그림을 지어 바쳤다.²²⁾ 또한 성종4년(1473)에는 사직의 담 밑에서 기생과 공인을 데리고 활을 쏘고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소나무를 밟아 손상시킨 형조좌랑 김민에 대한 추국의 논의가 있었고,²³⁾ 성종21년(1490)에도 사직 부근에서 무례하고 거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발하도록 하는 전교가 있었다.²⁴⁾

이 시기 사직단의 상황은 성종5년(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사직단(社稷壇)」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도설(圖說)은 사직단 영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이 그림의 사직단은 단(壇)과 유원(壝垣), 주원(周垣) 및 제기고(祭器庫) 일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은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양단을 둘러싸는 담장인 유원에는 사방으로 유문(壝門)이 배치되었고, 북유문 안쪽 좌우에는 감(坎)이 각각 1개씩 배치되었다. 유원의 바깥으로 다시 주원이 둘러싸고 있는데, 유원과 마찬가지로 사방에 홍살문 형식의 주문(周門)이 있으며, 정문에 해당하는 북주문(北周門)만 삼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판위(版位)가 놓여 있다. 주원 안 서남쪽에 신실(神室)이 있다. 그리고 주원 밖 서편에 따로 일곽이 형성되어, 중문을 들어서면 마당에 우물이 있고, 북에서 남쪽으로 재생정(宰牲亭), 제기고(祭器庫), 신주(神廚), 악기고(樂器庫)가 배치되었다.²⁵⁾



사직단(社稷壇), 『국조오례의』, 1474년

선조25년(1592) 왜군의 침입으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임금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다. 불가피할 경우 동궁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봉안하였다.²⁶⁾ 선조30년(1597) 임금이 동궁이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잠시 종묘와 사직의 신주가 아직 미봉환된 시기가 있는데, 사헌부와 예조의 의론이 빈발하여²⁷⁾ 마침내 같은 해 10월에 환도하였다. 하지만 겨우 신실에 신주를 봉안하였을 뿐 당시 사직단 주변은 정비되지 못한 상태

로 있었다.²⁸⁾ 이 때 예조에서는,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야 안 되고, 단 하루만 성 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아뢰었다.²⁹⁾

사직단의 보수공사는 광해군대(1608-1623)에 진행되었다. 광해군2년(1610) 사직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단문(壇門)과 유문(壘門)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³⁰⁾ 한편 광해군대에는 인왕산 주변을 길지로 보고,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仁慶宮)과 경덕궁(慶德宮, 후의 경희궁)을 인왕산 기슭에 지으면서, 사직단 영역 주변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인경궁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의논까지 있었으나, 결국은 그 북쪽에 자리하게 되었다.³¹⁾ 그러나 여전히 인경궁의 남쪽 남장이 사직단의 북쪽 담장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 의논하는 기록이 남아있다.³²⁾

인조14년(1636) 청나라의 침입으로 임금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와 함께 피난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출발한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먼저 출발한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강화에 옮겨졌다.³³⁾ 인조15년(1637) 1월 청나라 군대가 강화를 함락하자 종묘와 사직의 신주는 남한산성을 거쳐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 봉안되었고, 5월에 이르러 본래 자리에 봉안되었다.³⁴⁾

숙종대(1674-1720)에는 사직단에 재전(齋殿)을 마련하고, 선조대에 지어진 신실(神室)을 개축하는 등 사직단 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었다. 숙종7년(1681) 사직서 관원이 숙직하는 집을 국왕이 머무르는 재전(齋殿)으로 삼았다.³⁵⁾ 숙종20년(1694)에는 신실이 기울어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다시 지었다.³⁶⁾ 실제 숙종은 재위 28년(1702) 추향(秋享)을 위해 사직에 나아가 재소에서 잤다.³⁷⁾ 하지만 재위 34년(1708)에는 신하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재실로 가지 않고 장전(帳殿)에 그대로 거처하였다고 하니,³⁸⁾ 사직서 관원의 숙소로 재전을 삼았다고 하여도 계속 이용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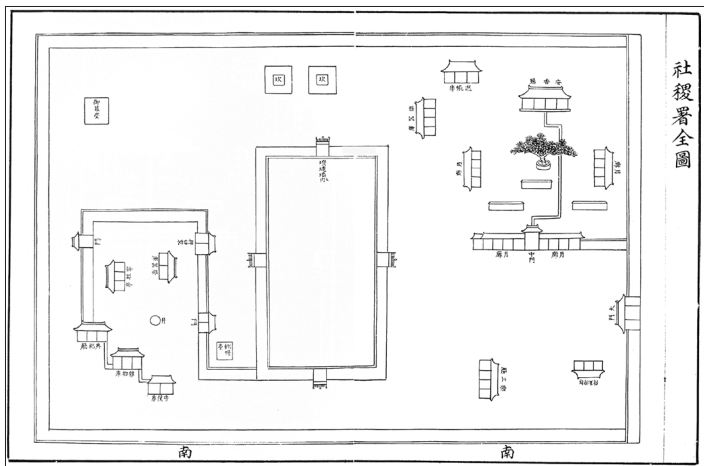
숙종대와 영조대(1724-1776)에는 사직 부근의 솔밭에 대한 기사가 조선왕조 실록에 자주 등장한다.^{39) 40)} 또한 18세기 후반이후의 것들인 조선후기의 도성지도들에도 사직 부근에는 솔밭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정선의 그림으로 유명한 사직 노송(老松)은 숙종과 영조의 어제(御製) 시(詩)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이미 명물이었다.⁴¹⁾



사직노송도, 정선(1676-1759), 고려대학교박물관

정조는 사직서의 제도가 정리되어 있지 못함을 알고 의궤의 편찬을 명하여 이를 편찬케 하였다.⁴²⁾ 또한 각 고을의 사직단에 대해서도 시설을 보수하고 인원을 충원하며 매달 빠짐없이 사직단 제사를 지내 이를 보고토록 하였다.⁴³⁾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 수록된 ‘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은 당시의 사직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자료이다. 그림을 보면, 동쪽에 설치된 대문을 중심으로 바깥 담장이 두르고, 담장 내부는 가운데 단유를 두고 좌우측에 부속시설이 균을 이루는 3부 구성을 하고 있다. 대문에 가까운 쪽으로는, 부장직소(部長直所)와 악공청(樂工廳)이 아래쪽에 있고, 위로는 안향청(安香廳) 일곽이 있다. 이 일곽은 월랑(月廊)과 중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중문에서 안향청 사이는 신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앞서 언급한 사직노송이 바로 이것으로 생각된다. 안향청 앞마당 좌우에 부속건물이 각각 한 동씩 있는데 모두 월랑으로 표기되어있다. 안향청과 단유 사이에는 차장고(遮帳庫)와 제기고(祭器庫)가 있다.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17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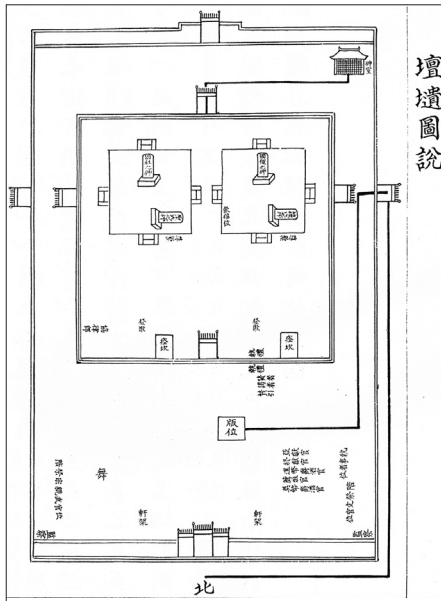
중앙에 위치한 단유는 바깥쪽의 낮은 담장인 주원(周垣)과 사방의 홍살문만 표기되어 있고, 북쪽 홍살문에는 단북장문(壇北牆門)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 바깥으로 감(坎)이 2개 있다.

단유의 서쪽으로는 사직단의 관리 및 제사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재생정(宰牲亭)과 제기고(祭器庫), 우물을 가운데 두고, 저구가(杵臼家)와 문(門), 전사청(典祀廳), 잡물고(雜物庫), 수복방(守僕房) 등이 담장과 함께 삼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놓여 있다.⁴⁴⁾

‘사직서전도’의 배치 양상을 《국조오례의》의 그림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직서 담장 안 동북쪽에 안향청 일곽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안향청은 왕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임시 거처하였던 건물로,⁴⁵⁾ 사직서의궤의 기록을 통해 1694년 숙종대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⁴⁶⁾ 또한 북주문 바깥으로도 감(坎)이 증설되었으며, 기존의 제기고 일곽에는 신주(神廚)와 악기고(樂器庫)가 없어지고 다른 시설들이 증축되었다.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壇壝圖說)’에는 사직단의 주원(周垣) 내부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 내용

은 앞서 살펴본 《국조오례의》의 내용과 유사하며, 판위(版位), 신실(神室), 문을 연결하는 신도가 추가로 표기되어 있다.



단유도설(壇壝圖說), 《사직서의궐》, 1783년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사직단의 지위가 제국의 제사시설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관직, 예법의 위계, 위판 등이 변경되었으나⁴⁷⁾⁴⁸⁾⁴⁹⁾ 사직단 시설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종대(1907-1910)인 1908년 향사리정(享祀釐正)으로 여러 제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사직단의 제사는 연 2회로 고정되었고,⁵⁰⁾ 1911년에는 원구단과 함께 사직단의 시설과 부지가 조선총독부에 인계됨으로써 제사가 완전히 정지되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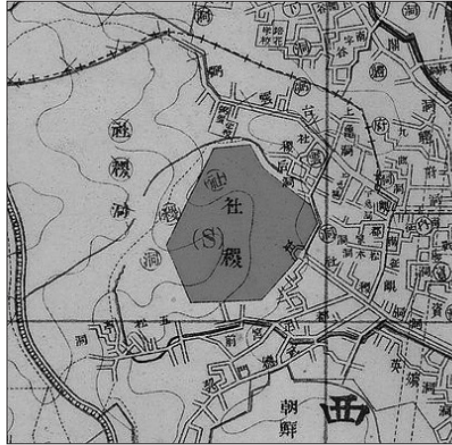
2. 일제강점기, 사직공원의 조성

한일합방 이후 사직단 부지는 1912년 토지조사에 따라 사직동 1번지, 16,662평의 면적이 조선총독부 소유(국유지)의 사사지(社寺地)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사직단 영역에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로 남겨져 있었다.

당시의 지적원도를 보면 구체적인 대지의 형태와 함께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사직단이 현재와 같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직단은 조선후기의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광화문 앞의 대로에서 직각으로 뻗어 나온 길의 끝에 대문을 두어 비스타(Vista)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한 시설을 가로 끝에 두어 시선의 초점을 구성하게 하는 수법은 광화문, 돈화문, 그리고 경운궁의 대한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문은 황토현 광장에서 남대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착으로, 돈화문은 광화문에서 창경궁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각각 비스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사직단 대문도 사직터널의 개통과 연결도로의 확폭으로 인해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



1912년 사직동 1번지 (음영부분, 1912년 지적원도 위에 편집)



1914년의 사직단 (경성부시가감제도)

사직단 일원의 경관에 큰 변화가 크게 생긴 것은 1920년대 시작된 공원화 계획에 의한 것이다. 1921년 경성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직단 부지를 차입하여 사직단을 헐고 운동장이 들어선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직단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⁵²⁾ 이를 반영하여 1921년 12월, 경성부는 경성의 한 명소인 사직단은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다수의 고목(古木)을 활용하여 공원을 설치한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⁵³⁾ 사직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효창원 공원, 재동 취운정(翠雲亭) 공원과 함께 도시 개량과 대경성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포함되었다.⁵⁴⁾⁵⁵⁾

한편, 사직단이 공원으로 조성되어가던 1922년, 사직단 북쪽 인왕산 자락으로 황학정(黃鶴亭)이 이전되었다. 황학정은 원래 경희궁 회상전(會祥殿) 북쪽에 조성된 사정(射亭)으로 1899년(광무3)에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⁵⁶⁾ 1908년 고종이 경운궁에서 새문안로의 구름다리(雲橋)를 건너 경희궁 황학정에서 활쏘기 연습을 한 기록이 있으며,⁵⁷⁾ 왕실 인사 또는 각부대신들도 황학정에서 활쏘기를 하였다고 한다.⁵⁸⁾ 황학정이 경희궁을 떠나게 된 것은 경희궁에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 관사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활을 쓰는 곳과 전매국 관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황학정에서 활 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황학정은 한량(閑良)들의 편사터(便射)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백호정, 청룡정, 한강사정 등과 함께 많은 궁사들이 연습과 시합을 즐기는 장소로 운영되었다.⁵⁹⁾



황학정의 원위치 (흥화문내총독부관사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1922-1923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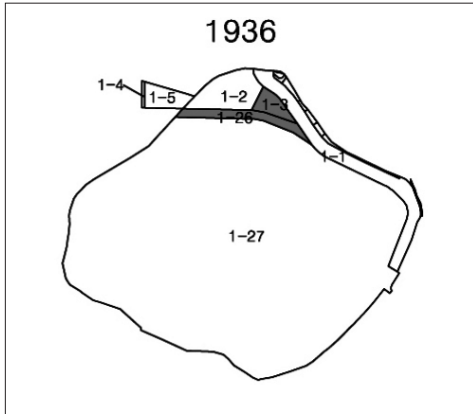
1923년 드디어 일부 시설을 갖춘 ‘사직단 공원(혹은 ‘사직공원)’이 개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공원 설비공사가 진행되었다. 1923년 7월의 대납량대(大納涼臺) 설치,⁶⁰⁾ 1924년 5월의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⁶¹⁾ 1924년 11월의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⁶²⁾ 1926년 2월 개울의 호안 공사 및 벚꽃과 단풍나무 식수, 도로 일부 개수, 다리 설치, 테니스 코트 및 정자 2개소 설치, 전등과 공동변소 설치⁶³⁾ 등을 들 수 있다.

1930-1940년대의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녹지공원이자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소, 사직단이라는 문화유산을 갖춘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첫째, 사직공원은 인왕산과 연계된 풍부한 녹지를 갖춘 녹지공원이었다. 사직공원은 ‘송백(松柏)이 응울(翳鬱)하여 아름다운 천연의 공원’이며 여름 더위를 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는 공원이요, ‘훌륭한 피난처’이자 ‘안식소’였으며, ‘서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황학정이 있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백년 노송이 군데군데 서있고 온갖 수목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시원한 별천지’였다.⁶⁴⁾ 특히 사직공원은 오래된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공원 안의 나무가 특별히 소개되기도 하였다.⁶⁵⁾ 더 나아가 1933년에는 사직공원에서 인왕산을 거쳐 창의문을 지나 동소문까지 다다르는 도로를 개통하여 삼림(森林)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등장하였다.⁶⁶⁾ 1934년 사직공원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었고,⁶⁷⁾ 1939년에는 동네 주민들이 ‘사직단공원 근로봉사회’를 조직하여 청소와 취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⁶⁸⁾ 1940년 식수일(植樹日)을 맞이하여 경성부가 사직공원 식수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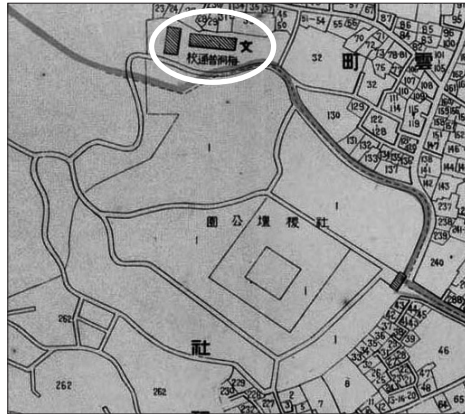
둘째, 사직공원은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의 장이었다. 사직공원은 구세군이 고아들에게 겨울옷과 음식을 나눠주었던 장소였으며,⁷⁰⁾ 서울보건체조단(서울保健體操團)에서 보건체조를 하던 곳이었다.⁷¹⁾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하급 세민층의 교화를 위하여 사직공원에서 사회교화활동사진회(社會活動寫眞會)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⁷²⁾ 궁민 구제(窮民救濟) 사업으로 1935년 공원 안에 인보관(北部隣保館)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었다.⁷³⁾

셋째, 사직공원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갖춘 공원이었다. 사직단이 오래된 유적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사직단 영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직단과 사직단 영역 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이 진행되었다. 1931년에는 사직단 재실(齋室)이 광화문, 흥인지문 등과 함께 경성부 내 37개의 고대의 건물로 선정되어 조선고적명소천연물보존령(朝鮮古蹟名所天然物保存令)에 의해 보존되게 되었고,⁷⁴⁾ 1935년에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에서 사직단을 고적(古蹟)으로,⁷⁵⁾ 1938년에 사직단문을 보물(寶物)로 지정하였다.⁷⁶⁾

한편, 1930-40년대는 사직단이 자리한 ‘사직동 1번지’의 필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다. 1933년에 사직동 1번지 북쪽에 준공된 매동공립보통학교가 변화의 시발점이다. 먼저 1931년에 사직동 1번지에서 사직동 11번지가 도로로 분할되는 것을 시작으로 1936년까지 많은 필지 분할이 있었는데, 모두 매동학교가 자리한 북쪽 변과 접근로에 해당하는 동쪽 변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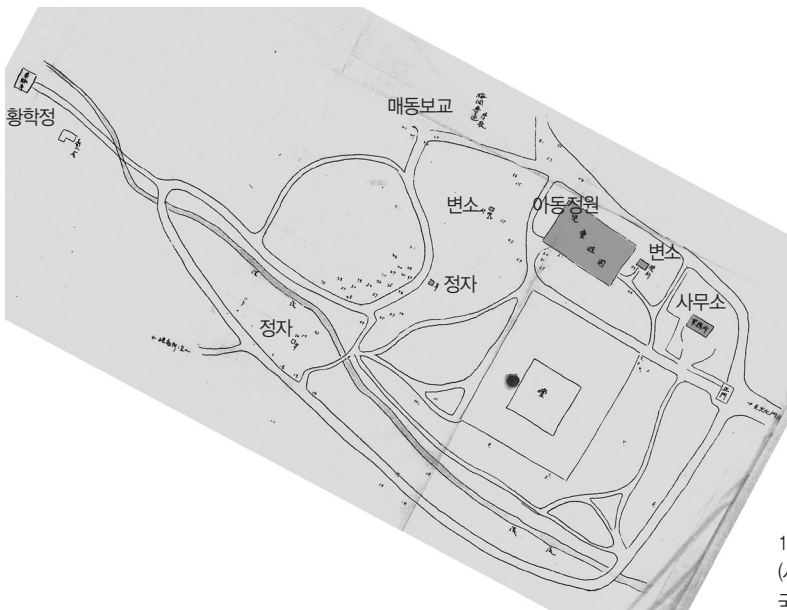


1936년 사직동 1번지 필지



사직단공원과 매동공립보통학교(대경성정도, 1936년)

이후 사직공원 필지는 사직단의 고적 지정과 사직단 정문의 보물 지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1937년 당시 사직공원 필지인 1-27번지에서 사직단의 주원(周垣) 내부영역이 1-28번지로 분할되었으며, 1940년에는 사직단 대문이 위치한 부분이 1-38번지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사직공원은 3개의 필지로 나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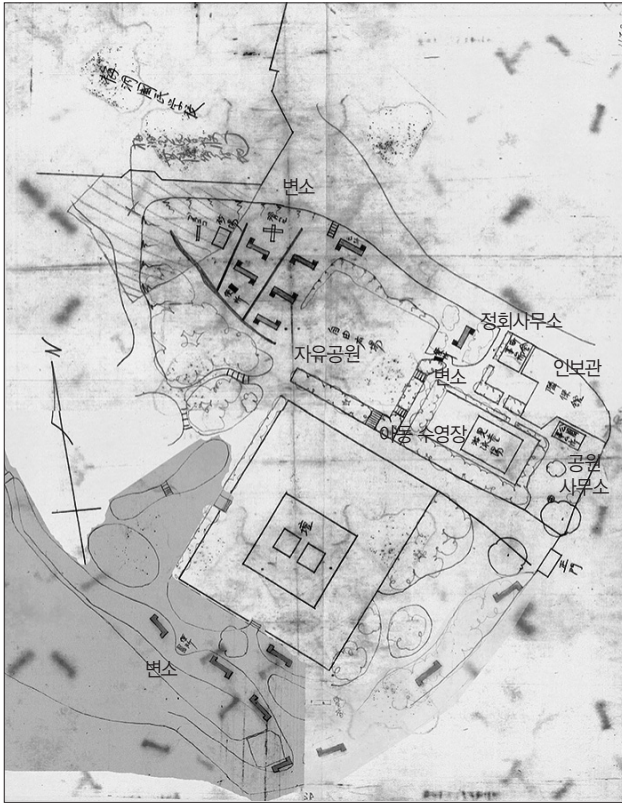


1937년 사직공원 배치도
(사직단공원관유림내 고손목(枯損木)조사도, 국가기록원 소장,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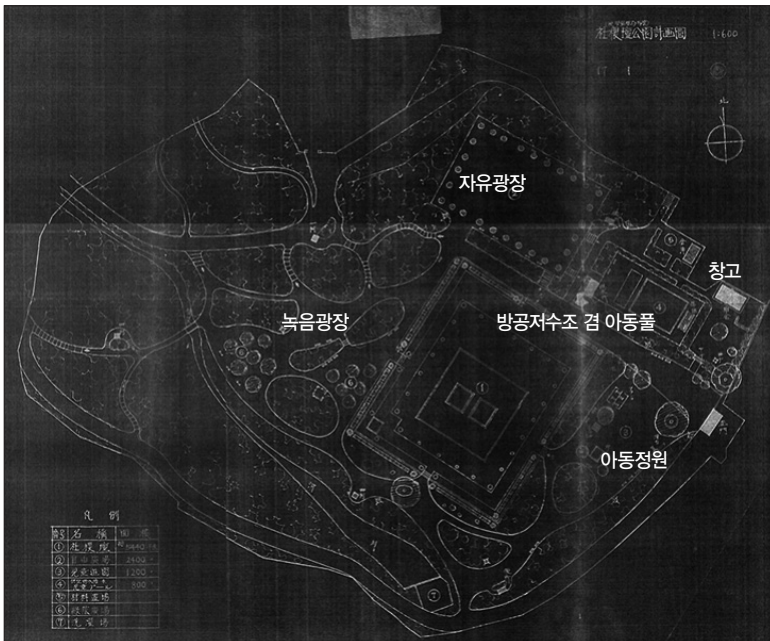
한편 사직공원 내 시설은 1930-40년대에도 계속 정비되었다. 1937년 공원 배치도에는 사직단에서 황학정까지의 지역에 걸쳐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아동정원(兒童庭園)과 정자, 변소가 설치되어 있고, 사직단 외의 사직서 부속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안향청만 남아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1941년 공원 배치도에서 기존에 아동정원과 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아동수영장과 정회(町會)사무소 및 인보관(隣保館)이 추가적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직공원 내에 여러 동의 방공호(防空壕)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동수영장은 공습에 대비한 방화용 저수조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었다. 한편 매동공립보통학교 남쪽으로 사직공원의 부지를 침범하여 학교 시설을 세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에는 그 계획이 진행되어 공원 내 새로운 길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직공원의 길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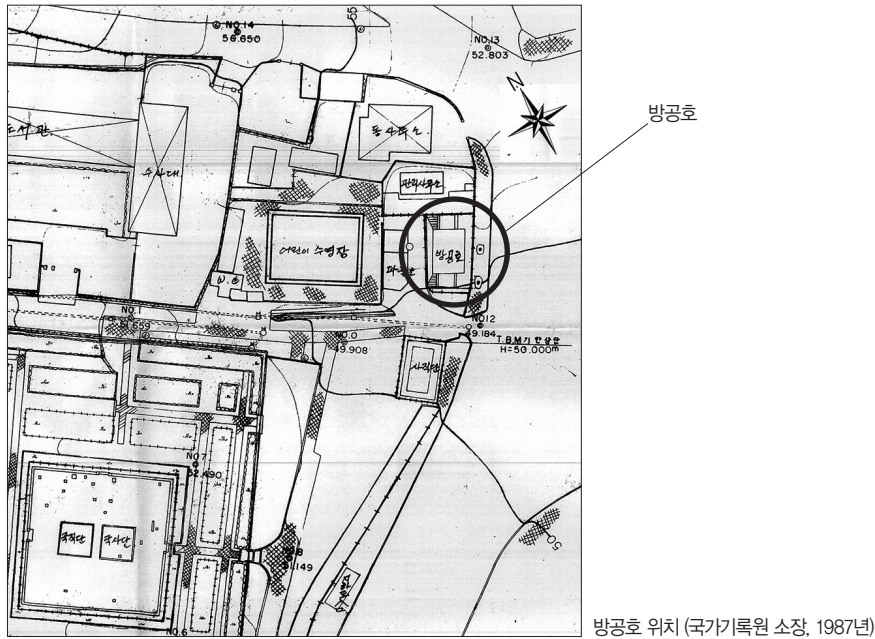
1941년 사직공원 배치도
(공원용지내방공호설치에관한건, 국가기록원 소장, 1941년)



1943년 사직공원 계획도
(사직단공원광장이전공사설계서, 국가기록원 소장, 1943년)

3. 해방 이후, 사직공원의 변화

해방이 되어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제시기에 지은 방공호에 전제민들이 몰려들어 사용하였다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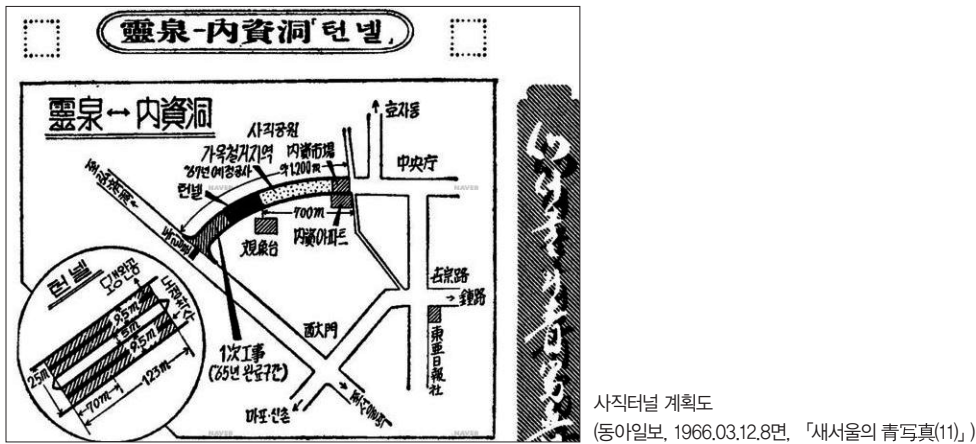
현재 사직동 주민센터가 자리한 곳이 일제시기 인보관(隣保館)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시립중앙보호소에서 사용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8년 1월 12일에는 사직동 산 1번지에 소년수용소가 개원하였으며,⁷⁷⁾ 같은 해 1월 24일에는 시립중앙보호소가 사직공원에 설치되면서 소년수용소는 시립중앙보호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시 운영 중단되었으나, 9.28 수복으로 재차 개소하였는데, 보호소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 인보관을 임시로 사용하였다.⁷⁸⁾ 한편, 1958년 서대문구 응암동 산7-12에 시립아동보호소가 조성됨에 따라 사직동의 아동보호소는 역할이 중단되었다. 대신 보다 어린 영아를 수용하는 시립영아원이 설립되어 구 인보관 자리에 1963년 신청사를 지었으며, 1966년 보육병원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원래 1956년에 보건병원으로 세워진 것이다. 보건병원은 시비(市費)와 AFKA(미8군대한현지원조계획업체보조)의 원조를 받아 1956년 2월 10일 기공되어 9월 26일에 완공되었으며, 대지면적 2,204평 및 건평 1,183평이었다.⁷⁹⁾ 1966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인접한 시립영아원을 통합하여 ‘보육병원’으로,⁸⁰⁾ 1969년 4월에 다시 ‘시립아동병원’으로 개칭되었다.⁸¹⁾ 이후 1977년 10월 1일에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새로 조성된 청사로 이전하고, 그 건물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⁸²⁾

1960년 7월에는 방공호 서쪽에 어린이풀이 개장되었다. 사직공원 내 어린이풀은 원래 1941년경 방공저수조(防空貯水槽) 겸 아동수영장으로 만들었던 시설을 재활용한 것으로, 시내 7개 공원에 계획된 수영

장 중 가장 먼저 개장된 것이었다.⁸³⁾

해방이후 사직단 일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현옥 시장 재임(1966-70)시에 벌인 일련의 도시개조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에 사직터널이 개통되었고,⁸⁴⁾ 사직공원과 독립문간의 도로가 확장되며 사직단의 정문의 위치가 이전되었다.⁸⁵⁾⁸⁶⁾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개통 및 확장은 사직공원 내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촉진시켰다. 1968년 25m×50m 국제규격의 사직파라다이스수영장이 개장되었다.⁸⁷⁾ 또 파고다 공원 뒤에 있던 종로도서관이 사직공원 내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같은 해 사직단 서쪽에서는 단군전과 사직단기념관이 새로 건립되었고, 황학정에서는 사계(射界)의 시야를 가리는 주변 암석 제거 공사가 진행되었다. 무장공비 기습사건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연결 도로(현 인왕산로 및 북악산로)가 갑작스럽게 조성된 것도 1968년의 일이다. 이와 함께 1969년에는 울곡이이선생상이 설치되고 사직파출소가 건립되었으며, 1970년에는 신사임당 동상도 설치되는 등 체육·문화·교통·안보·종교시설 등이 사직공원 내외에 들어섰다.



한편, 1977년에는 시립아동병원이 이전하고 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1979년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고, 사직동 사무소를 새로 세웠다.

1985년 수립된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은 사직단 영역이 역사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1988년 사직단과 유원, 유문 및 주원과 주문, 신실(神室) 등을 복원·정비하고,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던 안향정을 복원하는 대신 그 옆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다. 하지만 사직단의 옛 모습을 완전히 살리는 데는 실패하였다. 1985년에 수영장 철거가 논의되어 1988년경 철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7년 울곡선생과 심사임당의 동상을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옮겨 세웠고, 김동인 문학비를 타처로 이전하였을 뿐 나머지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또한 1985년 사직공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학정을 경희궁의 원래 위치로 옮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1990년 단군성전이 대대적으로 개축되었다.

4. 2013년,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언

조선 태조4년(1395) 국가 제례시설로 건립된 사직단은, 정종의 개경 환도와 태종의 재천도, 그리고 임진왜란 중의 신주 피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50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켰다. 그 사이 궁궐은 정변과 외침 등의 영향으로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종묘와 사직은 왕조 국가의 상징 시설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도성의 중심부에서 권위를 유지하였다.

사직단이 훼손된 것은 조선의 국권이 피탈된 이후의 일이다. 일제 식민지 초기 원래의 기능을 잃고 유희지로 방치되었던 사직단 일원은 1920년대 들어 도시 공원으로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하고, 식민지 말기 전쟁기에 들어서는 방공을 위한 피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겸하여 더욱 심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1967년 사직터널을 개통하여 통과도로를 만들고, 이듬해 종로 도서관과 파라다이스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그 역사적 경관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기능적 개발을 역사성 보존보다 우선시한 것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1979년에는 새롭게 금화터널을 뚫고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광화문에서 연희동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길에 걸린 독립문은 뜯어서 길옆으로 옮겨졌다. 즉, 길 위에 놓인 개선문 형태의 독립문이 공원 가운데 조형물처럼 서있게 된 것이다.

근대기에 훼손된 역사 경관에 대한 복원 움직임은 1980년대 초의 창경궁 복원이 그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창경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1983년에 시작하여 1986년에 일차 완공한 것은 이후 1990년대 벌어지는 일련의 궁궐 복원 사업의 시초가 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역사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에는, 대외적으로는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대내적으로는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되어 강남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이전하면서 생긴 이전적지의 역사경관 회복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4년은 서울의 정도 6백주년이라는 해로써 기념사업이 활발히 논의, 실행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재설치되면서 좀 더 섬세한 지역 밀착형의 행정이 시행된 것 등도 역사 복원 움직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직단은 궁궐이나 종묘보다 관심을 덜 받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궁궐이나 종묘와 같이 일반인의 관심을 끌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으며, 또 비교적 작은 대지이지만 다양한 관리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서 일괄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렵고, 그리고 사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서울의 도시 발전 단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 복원과 관련된 도시 정책의 일반적인 단계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192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도심내 유휴 국유지를 쫓아 건설된 각종의 근대 도시시설은 모두 그 당시 긴박하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건립된 것들이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직단의 한정된 지역 안에 있을 이유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1980년대 궁궐의 복원에 강남 개발이 순작용을 하였던 것처럼, 최근의 용산민족공원과 상암지구 개발 등 서울의 균형 개발 사업에 맞추어 좀 더 인구 밀집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희궁의 완전 복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후암동 이전 등도 참고할만한 비교대상이 된다.

한편, 1990년대까지 역사 문화재 복원에 오로지하였던 도심부 경관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하여 하천 등의 생태 복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사직단 일원은 한양 성벽과 연결된 도성내 서부의 유일한 녹지 공간으로서 녹색경관 생태복원의 중요한 사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궁궐들이 자리한 도성 내 북부지역과 낙산 시민아파트 철거로 조성한 도성내 동부지역, 그리고 남산 경관 복원으로 회복하고 있는 도성내 남부지역과 함께 도성내부의 사방에 고른 역사·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노력과 사직단의 복원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사직 대제의 정기적인 시연을 통한 대중적인 관심의 환기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대국민 홍보와 역사자료 고증 사업 등도 사직단의 복원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는, 이미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서울이 더 이상 기능 위주의 개발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 중심 이동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에 기업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후기자본주의적 도시의 상황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연적으로는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매력적인 지형과 살기 적당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 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백제의 첫 수도이자, 조선 왕조 오백년의 도읍으로서 각종의 유형자산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 도시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베이징이나 도쿄, 상하이나 홍콩을 누르고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직단은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의 녹색 경관 확보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즉, 사직단 일원의 역사성 회복은 일차적으로 종묘와 사직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도성의 상징체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다 광역적으로는 서울 도성에서 시작하여 도심부로 내려오는 녹색 경관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사직단만 중요하다거나 사직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직단만 빠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늦출 수 없다.

- 1) 『태조실록』, 권3, 태조2년, 1393.02.10.乙酉
- 2) 『태조실록』, 권3, 태조2년, 1393.02.10.乙酉
- 3) 『태조실록』, 권6, 태조3년, 1394.09.09.丙午
- 4)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1395.01.29.甲子
- 5) 『세종실록』, 권57, 세종14년, 1432.09.01.丙辰
- 6) 『태종실록』, 권5, 태종3년, 1403.01.08.丙戌
- 7) 『태종실록』, 권10, 태종5년, 1405.10.20.壬午
- 8) 『태종실록』, 권12, 태종6년, 1406.07.21.戊寅
- 9) 『태종실록』, 권13, 태종7년, 1407.04.08.壬辰
- 10) 『태종실록』, 권27, 태종14년, 1414.04.17.庚申
- 11) 『태종실록』, 권25, 태종13년, 1413.06.08.乙卯
- 12) 『태종실록』, 권32, 태종16년, 1416.09.12.庚子
- 13) 『태종실록』, 권11, 태종6년, 1406.06.05.癸亥
- 14) 『태종실록』, 권25, 태종13년, 1413.04.13.辛酉
- 15) 『세종실록』, 권32, 세종8년, 1426.06.09.辛未
- 16) 『세종실록』, 권16, 세종4년, 1422.05.10.丙寅
- 17) 『세종실록』, 권57, 세종14년, 1432.09.01.丙辰
- 18) 『문종실록』, 권7, 문종1년, 1451.04.17.乙酉
- 19) 『문종실록』, 권8, 문종1년, 1451.07.20.丙辰
- 20) 『성종실록』, 권11, 성종2년, 1471.08.03.癸卯
- 21) 『성종실록』, 권252, 성종22년, 1491.04.11.丙辰
- 22) 『성종실록』, 권286, 성종25년, 1494.01.27.丁巳
- 23) 『성종실록』, 권29, 성종4년, 1473.04.26.丙戌
- 24) 『성종실록』, 권237, 성종21년, 1490.02.26.戊申
- 25) 문화재청, 『사직단 정문: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80 쪽
- 26) 『선조실록』, 권27, 선조25년, 1592.06.14.壬寅
- 27) 『선조실록』, 권92, 선조30년, 1597.09.17.甲辰
- 28) 『선조실록』, 권93, 선조30년, 1597.10.21.戊寅
- 29) 『선조실록』, 권92, 선조30년, 1597.09.27.甲寅
- 30)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2년, 1610.03.28.癸酉
- 31) 『광해군일기』, 권101, 광해군8년, 1616.03.24.甲午
- 32) 『광해군일기』, 권115, 광해군9년, 1617.05.29.辛卯
- 33) 『사직서의궤』, 권3, 『경란사실(經亂事實)』, 인조14년,
- 34) 『사직서의궤』, 권3, 『경란사실(經亂事實)』, 인조15년,
- 35) 『숙종실록』, 권11, 숙종7년, 1681.05.17.己巳
- 36) 『숙종실록』, 권27, 숙종20년, 1694.09.22.丁亥
- 37) 『숙종실록』, 권36, 숙종28년, 1702.02.05.丁巳
- 38) 『숙종실록』, 권46, 숙종34년, 1708.05.24.己亥
- 39) 『숙종실록』, 권18, 숙종13년, 1687.09.12.丁亥
- 40) 『영조실록』, 권37, 영조10년, 1734.01.05.壬午
- 41) 『영조실록』, 권42, 영조12년, 1736.09.02.癸巳
- 42) 『정조실록』, 권15, 정조7년, 1783.01.08.庚子
- 43) 『정조실록』, 권19, 정조9년, 1785.01.02.壬子
- 44) 문화재청, 앞의 책, 2005, 81 쪽
- 45) 문화재청, 앞의 책, 2005, 81 쪽
- 46) '오세욱, 김기빈,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12, 215 쪽' 의 '단유와 관사' 편의 숙종 20년 10월 기록 참조.
- 47)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1895.04.02.癸卯
- 48) 『고종실록』, 권34, 고종33년, 1896.07.24.
- 49) 『고종실록』, 권36, 고종34년, 1897.10.08.
- 50) 『순종실록』, 권2, 순종1년, 1908.07.23.
- 51) 『순종실록』, 권2, 순종4년, 1911.02.20.
- 52) 동아일보, 1921.11.29.『橫說整說』
- 53) 동아일보, 1921.12.26.『新設할三處의公園』
- 54) 동아일보, 1921.12.30.『來年度에 社稷壇에서 園新設』
- 55) 동아일보, 1922.05.05.『社稷公園의新設備』
- 56) 京城府, 『京城府史』, 1권, 1941, 356-357 쪽
- 57) 황성신문, 1908.4.22., 『御射黃鶴亭』
- 58) 대한매일신보, 1908.4.21., 『매일속습』와 대한매일신보, 1908.5.24. 『잡닐논다』
- 59) 매일신보, 1921.7.25., 『聯合便射大會, 한강 말굽다리 근처에서 양일간 편사회』
매일신보, 1921.8.9. 『石虎亭이 又慘敗』
- 60) 동아일보, 1923.07.18. 『社稷公園에 大納涼臺 일간공사를시작』
- 61) 동아일보, 1924.05.08. 『각 공원을 수리, 2만원의 예산으로 각 공원에 정자와 화단을 설치, 효창원과 사직단 도로를 개척』
- 62) 동아일보, 1924.11.16. 『即時着手할 社稷公園』
- 63) 동아일보, 1926.12.13. 『社稷公園에植櫻 庭球場도二個所設置
사직단공원의금년도사업』
- 64) 매일신보, 1930.06.12. 『初夏點景 第十場』
- 65) 동아일보, 1933.07.22. 『高齡樹巡禮』
- 66) 동아일보, 1933.04.16. 『近郊一帶에森林公園 南山仁旺에散策路』
- 67) 동아일보, 1934.06.29. 『市街地令과 그림치는 影響 (4)』
- 68) 매일신보, 1939.07.20. 『町内の老少가公園을每日清掃 社稷町勤勞奉仕隊組織』
- 69) 동아일보, 1940.03.25. 『京城府의植樹祭』
- 70) 중의일보, 1930.01.12. 『飢寒의 거리에 출현한 천사』
- 71) 동아일보, 1932.03.05. 『서울體操團 聯合練習』
- 72) 동아일보, 1932.10.06. 『府社會課主催 教化映畫公開』
- 73) 동아일보, 1935.12.19. 『四萬五千圓으로 運動場改修』
- 74) 동아일보, 1931.06.09. 『宗教課에서草案完了 古蹟과寶物保存令』
- 75) 동아일보, 1935.08.09. 『團丘壇(한구단)은寶物(보물)로되고 獨立門(독립문)은
古蹟(古적)으로』
- 76) 매일신보, 1938.09.28. 『寶物古蹟天然記念物 八十件을 追加指定』
- 77) 동아일보, 1948. 1. 17. 『朝鮮少年保護資金에 『은라』救濟會서三百萬圓寄附』
- 7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解放後市政編)』, 1965, p.437
- 79) 동아일보, 1956.2.11., 『兒童保健 病院起工』
경향신문, 1956.9.23., 『市立保健病院竣工 26日落成式舉行키로』
- 80) 종로구, 『종로구지(하권)』, 1994, p.459
- 8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홈페이지(<http://childhosp.seoul.go.kr>)
- 82) 경향신문, 1976.3.23., 『江南구 내곡동에 市立아동병원』
경향신문, 1976.9.17., 『市立아동병원 移轉』
- 83) 동아일보, 1960.7.2., 『공원에아동풀 우선 세군데부터』
- 84) 동아일보, 1967.01.21. 『社稷터널 오늘開通』
- 85) 동아일보, 1967.01.24. 『都市計劃(도시계획)에 혈리게될
七宮(칠궁)·社稷壇(사직단) 文化財委員(문화재위원)들 撤去(철거)에 反對(반대)』
- 86) 동아일보, 1968.02.01. 『文化財(문화재)깎고가는 都市計劃(도시계획)』
- 87) 조선일보, 1968.8.2., 『사직공원 풀 개장』

발제Ⅱ 사직단 제례의 과거와 현재

김문식 교수/단국대학교 사학과

사직단 제례의 과거와 현재

1. 사직단 제례의 역사

사직단 제례는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올리는 제사이다. 사람은 땅이 아니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길러질 수 없다. 따라서 나라를 세우면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을 세워 백성을 살게 하고 길러주는 공덕에 보답하는 것이다.

사직단 제례는 또한 보편적인 제사였다. 하늘의 상제(上帝)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환구단 제례는 천자만 거행할 수 있지만, 사직단 제례는 천자와 제후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도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 때 사직에 모시는 신은 국가의 위상에 따라 태사(太社), 국사(國社), 치사(置社) 등으로 구분되었고, 국가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제례에 차이를 두어 중앙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반영했다.

중국의 사직단 제례는 은나라 초기부터 나타나며 한나라 때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당나라에서는 그 제도를 한층 완비했고, 명나라의 사직제는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이 북쪽을 향하면서 태사에는 후토(后土), 태직에는 후직(后稷) 신을 배향했다. 이러한 명의 제도는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북경에 있는 자금성의 서남쪽에 있는 중산공원(中山公園)에는 명청 시대의 사직단 유적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사직단은 백제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에서 사직단을 세웠고, 고려는 개성 안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례 제도를 정비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직단 제례는 국가 제례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사직은 민생에 관련된 최고의 신을 모신 제단이란 점이 강조되었고, 농업신과 연결되어 기우제(祈雨祭), 기고제(祈告祭)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의 종묘는 서울에만 있었지만, 사직단은 지방 주현(州縣)에까지 설치되어 수령들이 제사를 주관했다. 『국조오례의』에서 국가 제사의 서열은 사직, 종묘, 영녕전의 순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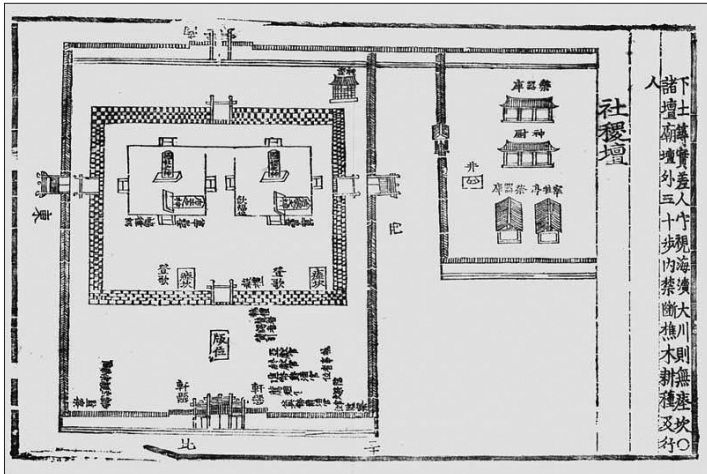


그림1) 『국조오례의』의 사직단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하면서 사직단의 신주를 개성의 목청전(穆淸殿)으로 옮겨서 보관했다. 1594년에는 전쟁 중에 불타 없어진 사직단 건물을 재건했다.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사직단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겼다. 그러나 신주가 훼손되자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직단으로 모셨다.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를 처음 거행한 것은 숙종 대였다. 기곡제는 원래 상제(上帝)에게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였다.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세조 이후 제천례를 중단했고 기곡제도 함께 폐지되었다. 숙종이 기곡제를 다시 거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흉년과 기근을 극복하고 풍년과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영조는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사직단의 기곡제를 대사(大祀)로 승격시켰으며, 정조는 모든 기곡제를 대사로 확정했다. 정조는 사직단 기곡제를 농업을 장려하고 민을 접촉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1783년(정조 7)에 정조의 명령으로 『사직서의궤(社稷暑儀軌)』를 편찬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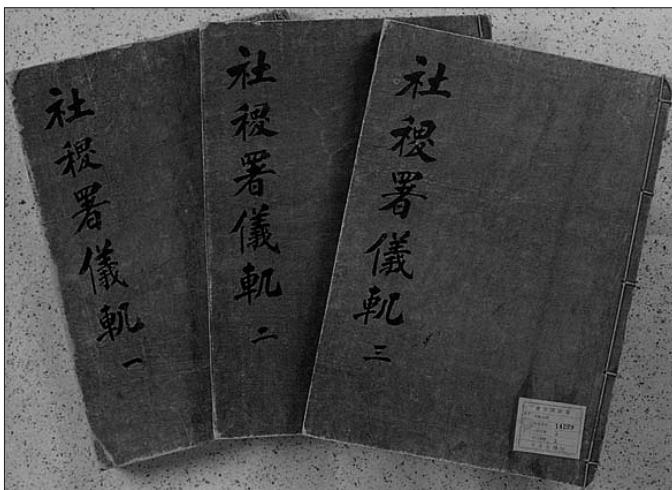


그림2) 『사직서의궤』의 표지

1897년 대한제국이 건설되면서 사직단의 위상도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조정되었다. 고종 황제는 사직단의 신위를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에서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바뀌었고, 대한제국이 탄생했다는 고유제를 사직단에서 거행했다. 그러나 이 해에 환구단이 설치되면서 기곡제는 환구단으로 돌아갔다. 기

국제는 원래 토지신이나 농업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상제에게 올렸던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 제사의 서열도 환구단, 종묘, 영녕전, 사직의 순서로 조정되었다. 국가 제사의 서열이 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대한예전』에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다.

구전(舊典)에서는 대사(大祀)에서 사직이 첫 번째이고 종묘가 그 다음이었다. 지금은 광무 원년(1897)에 환구단에서 제례를 거행한 조칙(詔勅)들에 실려 있는 ‘천지, 종묘, 사직’이라는 문장에 의거하여 서례(序例)를 다시 정하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된 1908년에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한 건」이 발표되면서 사직단 제례가 크게 축소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네 번씩 거행하던 제례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선농단(先農壇)과 선잠단(先蠶壇)에서 거행하던 제례가 사직단에 합쳐졌다. 사직단 제례는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완전히 폐지되었다.

2. 과거의 사직단 제례

정조 대에 사직단 기곡제가 대사로 승격되면서 사직대제에는 기곡(祈穀), 춘향(春享), 추향(秋享), 납향(臘享)이라는 네 가지 제사가 있었다. 제사가 거행되는 날짜를 보면 기곡제는 정월 첫 번째 신일(辛日)에 거행하고, 춘향제는 2월 첫 번째 무일(戊日), 추향은 8월 첫 번째 무일, 납향은 12월 납일에 거행했다.

사직단 제례에는 소사(小祀)도 있었다.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 눈이 내리기를 비는 기설제(祈雪祭), 괴이한 일이 있을 때 거행하는 해괴제(駭怪祭), 귀신을 위로하는 위안제(慰安祭), 사직단 신위를 이동시키는 이안제(移安祭), 중요한 일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에서 지방관이 거행하는 사직단 제례도 소사에 속했다.

다음의 <표 1>는 제례의 등급에 따른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제례에는 대사, 중사, 소사가 있었고, 등급에 따라 현관의 숫자, 재계 기간, 폐백이나 음악의 유무, 제기의 숫자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1. 제사 등급에 따른 차이점

구분 제사	현관 (獻官)	산재 (散齋)	치재 (致齋)	국왕 (香祝)	향축 (幣帛)	폐백 (幣帛)	음악	제기							
								籩	豆	俎	簠	簋	鬲	鉶	爵
대사	3인	4일	3일	○	○	○	○	12	12	3	4	4	6	6	6
중사	3인	3일	2일	○	○	○	○	10	10	3	2	2	3	3	3
소사	1인	2일	1일	×	×	×	×	8	8	2	2	2	-	-	3

사직단 제례는 초헌관의 위상에 따라 현관에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참석하는 사직대제라면 국왕이 초헌관이 되고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이 되었다. 만일 대신이 국왕을 대신하여 사직대제를 거행한다면 정1품이 초헌관이 되고 정2품이 아헌관, 정3품이 종헌관이 되었다. 소사에 해당하는 제사는 2품의 관리가 현관이 되고, 지방 군현에서는 각 지방 수령이 현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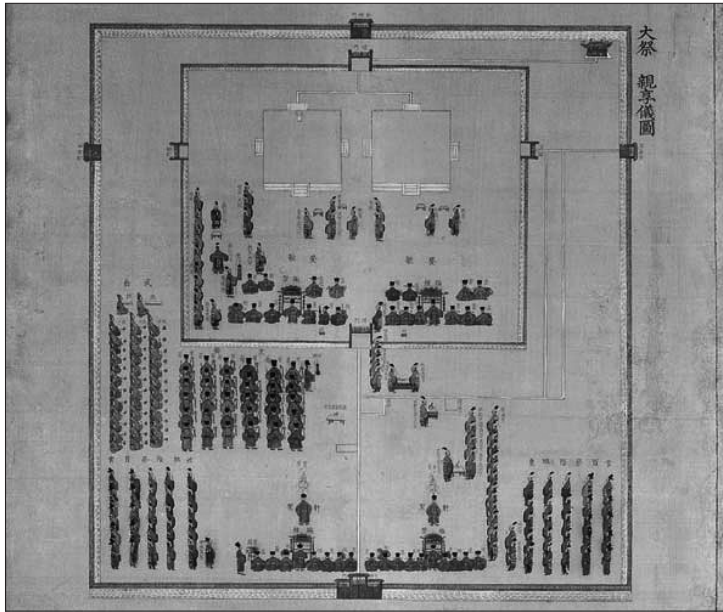


그림3) 국왕이 참석하는 사직대제

사직단 제례는 등급에 따라 의식 절차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직접 초헌관이 되는 친사의(親祀儀)를 중심으로 제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일 : 서운관에서 사전에 시일을 선택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국왕에게 보고 한다.

제계 : 제사 8일전에 국왕에게 알리면, 국왕은 4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를 하고, 2일 동안은 정전(正殿)에서 치재를 하며, 마지막 1일은 재궁(齋宮)에서 치재를 한다. 산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조문하거나 병문안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관리는 형벌을 가하는 문서를 보고하지 않는다. 치재를 할 때에는 제례에 관한 일 이외에는 일체의 사무를 보지 않는다.

친립서계 : 제사 7일 전에 제례에 참석하는 제관들은 공복(公服)을 갖춰 입고 의정부에 모여 서계를 한다. 서계의 내용은 제관은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고, 파 부추 마늘 같이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으며, 조문하거나 병문안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형벌 문서에 판결하거나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설 : 제사 3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일 전에는 천막 설치, 2일 전에는 제단 청소와 악기 설치, 1일 전에는 신좌를 설치하고 자리를 깐다.

친전향축 : 제사 1일 전에 국왕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춰 입고 인정전에 나와 향과 축문을 헌관에게 전달한다.

거가출궁 : 제사 당일에 국왕은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춰 입고 여(輿)를 타고 나와 인정문 밖에서 연(輦)으로 갈아탄다. 사직단 재궁 대문 밖에 도착하면 연에서 여를 갈아타고, 재궁에 도착하면 안으로 들어간다.

친성생기 : 당일에 국왕이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춰 입고 사직단 서문 밖으로 가서 제기의 세척 상태와 희생을 살핀다. 예조판서는 부엌에 들어가 술을, 중헌관은 명수(明水)와 불을, 감찰은 찬구(饌具)를 살핀다.

전폐 : 당일에 신위 판을 정해진 자리에 설치하고, 제관들이 입장한 후 국왕이 면복을 입고 사직단의 정문으로 들어간다. 국왕이 손을 씻고 제단에 올라가 국사, 후토, 국직, 후직의 신위 앞에 세 번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린다.

진숙 : 제례의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찬, 초헌, 아헌, 중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예의 순으로 진행된다.

- 진찬 : 전사관이 주방에서 소, 양, 돼지를 담아가지고 나와 신위 앞에 올린다.
- 초헌 : 국왕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고 꿇어앉으면 대축이 옆에서 축문을 읽는다.
- 아헌, 중헌 : 헌관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린다.
- 음복 : 대축이 국사와 국직의 준소에서 술을 떠서 술잔에 합하고, 국사와 국직의 신위 앞에서 고기를 덜어 조에 담아 온다. 국왕이 음복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받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 철변두 : 국왕과 제관들이 사배를 한 후 변두(饌豆)를 조금 옮긴다.

- 망예 : 국왕은 대차로 가서 면복을 벗고 원유관과 강사포로 갈아입는다. 아헌관은 망예위로 가서 대축 등이 서직, 축문, 폐백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는 것을 본다.

다음의 <표 2>은 제사 등급에 따른 의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 섭사 의의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서계에 참여하거나 거가출궁의 행사가 없었고, 소사인 기고의의 경우에는 제계, 진설, 행례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친사의(親祀儀)	섭사의(攝事儀)	기고의(祈告儀)
시일(時日)	시일	
제계(齋戒) 7일간	제계	제계
친림서계(親臨誓戒)		
진설(陳設)	진설	진설
친전향축(親傳香祝)	전향축(傳香祝)	
거가출궁(車駕出宮)		
친성생기(親省牲器)	성생기(省牲器)	
전폐(奠幣)	전폐	행례(行禮)
진숙(進熟)	진숙	
거가환궁(車駕還宮)	거가환(車駕還)	

표2. 사직단 제례의 의식 절차

3. 현재의 사직단 제례

현재의 사직대제는 1988년 9월 21일에 처음으로 복원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직단 제례가 폐지된 지 근 90년 만의 일이다. 사직대제가 복원되게 된 계기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었던 서울올림픽이었다. 사직대제는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종로구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종묘 제례의 예능보유자인 이은표에 의해 고증이 이루어졌다.

사직대제는 1992년 종로구청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 때 위기를 맞았지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별도로 사직대제 봉행위원회를 두어 제례를 이어갔다. 사직대제는 2000년 10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고, 이건웅이 사직대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사직대제는 1975년 종묘제례(제56), 1986년 석전대제(제85호)의 문화재 지정을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이자 품격 높은 전통문화로 거듭났다.

사직대제는 사직대제보존회의 주관아래 매년 10월 3일에 거행하다가, 2007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일요일로 옮겨서 거행하고 있다. 현재의 사직대제는 『국조오례의』나 『대한예전』 같은 국가전례서의 기록을 참조하고 종묘대제의 의례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15일에 거행된 사직대제는 사직대제보존회가 주관하고, 음악은 종묘제례악보존회, 무용은 국립국악고등학교의 후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현행 사직대제의 의식 절차를 이전 기록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구분	자료	사직서의례(1783)	대한예전(1898)	현행 사직대제	
준비	시일 재계 친림서계 진설 친전향축	시일 재계 친림서계 진설 친전향축	시일 재계 친림서계 진설 친전향축	당일 진설	
출궁	거가출궁	거가출궁	거가출궁	어가행렬(덕수궁~사직단)	
본행사	친성생기	친성생기	-	-	
	전폐	예모혈 전폐	전폐	예모혈 전폐	영신 전폐
	진숙	진찬 초헌 아헌 중헌 음복수조 철변두 - 망료	진숙	진찬 초헌 아헌 중헌 음복수조 철변두 - 망예	천조 초헌 아헌 중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료
	환궁	거가환궁	거가환궁	-	
하례	환궁 후 축하	환궁 후 축하	-	-	

표3. 사직대제의 의식 절차 비교

〈표 3〉을 보면 현재의 사직대제는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절차가 당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고, 거가출궁 행사는 덕수궁에서 사직단까지의 어가행렬로 대체되었다. 또한 제기와 희생을 살피는 친성생기는 생략되고, 희생의 털과 피를 예감에 묻는 절차는 영신 절차에 포함되었다. 현행 사직대제에서는 신편의 독(櫛, 상자)을 여는 영신(迎神)과 독을 닫는 송신(送神)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종묘대제에서 중시된 절차를 포함시킨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현행 사직대제의 제관을 『대한예전』의 기록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구분	대한예전	현행 사직대제	비고
초헌관	1	4	신위당 1명
아헌관	1	4	신위당 1명
중헌관	1	4	신위당 1명
진폐작주관	1	4	현행 내봉관, 신위당 1명
천조관	1	4	신위당 1명
전폐작주관	1	4	현행 외봉관, 신위당 1명
전사관	1	-	
집례	2	1	예능보유자
단사	1	-	
대축	4*1	4	
축사	4*1	4	현행 우전관, 신위당 1명
재당	4*1	-	
집준관	4*1	4	
봉조관	4*3	4	
장생령	1	-	
작세위	1	-	
관세위	2	3	
아중헌관세위	2*1	-	
찬자	2	1	현행 찬례
알자	2	-	
찬인	2	6	단상 4, 단하 2
예의사	1	-	
근시	4	-	
좌우장례	2	-	
상례	1	-	
감찰	2	4	현행 감제
계	60	55	

표4. 사직대제의 제관 비교

이를 보면 헌관 및 제물을 올리는 제관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고, 국왕이나 황제의 측근에서 수행하는 인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헌관과 제물을 올리는 제관의 숫자가 4배로 늘어난 것은 사직단의 네 신위(태사, 후토, 태직, 후직)에 각각의 인원을 배치한 때문이며, 이는 제례의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현행 종묘제례에서 각 신실(神室) 별로 인원을 배치한 것과 동일하다.

4. 사직단 제례의 개선 방안

사직대제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처음 사직대제를 복원했을 때에는 제례 자체의 복원에 초점이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제례에 수반되는 음악, 노래, 무용에까지 그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직단 제례가 더욱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까지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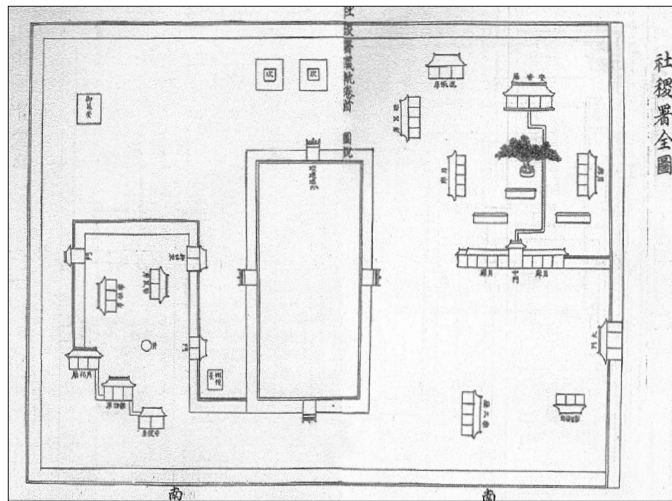


그림4 『사직서의례』에 나타나는 사직단 전경

사직단 제례가 원형을 회복하려면 사직단의 공간을 원형대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의 급선무이다. 1910년 사직단 제례가 폐지된 이후 사직단의 공간은 계속 축소되어 왔고, 지금의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을 둘러싼 두 개의 담, 즉 유(壘)와 주원(周垣) 안의 공간에서만 원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래 사직단 경역에 있었던 안향청(安享廳)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제사 준비를 하는 전사청(典祀廳)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들이나 어도(御道)는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직대제를 거행하면 제관들이 재계할 공간이 전혀 없고, 제관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이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관람객들과 동선이 겹쳐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부속 건물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제례 관련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례일 전후에 제수를 준비하고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제례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사직단 자체의 원형 회복도 필요하다. 원래 사단과 직단의 제단 위에는 오방색인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으로 된 흙이 방위별로 덮여 있었지만 현재는 황토로만 덮여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제도에 근거하

면 주위의 사방으로 나있는 4개의 홍살문이 황색으로 도색되어야 한다.



그림5) 과거의 사직단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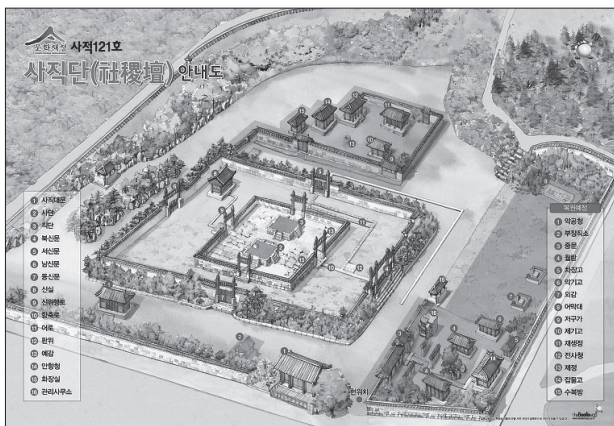


그림6) 현재의 사직단 안내도(복원예상도)

다음으로 사직대제의 제사 날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사직대제는 매년 9월 셋째 일요일에 한번씩 거행하며, 이는 조선시대로 치면 추향(秋享)에 가까운 것이다. 현재 사직단 제례와 함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묘와 문묘에서 춘향대제와 추향대제를 지내는 것을 고려하면, 사직단 제례도 춘향대제와 추향대제로 명칭을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거행할 것을 제안한다. 숙종 대부터 고종 때까지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냈던 기곡제(祈穀祭)의 회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기곡제가 환구단에서 거행되었지만 환구단이 회복되지 못한 현재로서는 사직단 기곡제의 부활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거가출궁이나 거가환궁을 대신하는 어가행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어가행렬은 조선 국왕의 행렬과 대한제국 황제의 행렬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격식에 맞는 어가와 호위 체계, 의장물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사직대제가 신주의 제도, 초헌관의 복식, 팔일무(八佾舞) 등에서 대한제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제례를 거행함을 고려하면, 어가행렬도 대한제국 황제의 행렬을 복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사직단의 공간 및 부속 건물이 복원된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직단을 활용하는 행사가 진행된다면 사직단 제례 가운데 가장 간단한 소사에 해당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본 행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발제Ⅲ 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적 기획과 전략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적 기획과 전략

I. 들어가며

사직단 복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3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사직단 복원과 역사성 회복을 통해 우리 역사의 맥을 잇고 민족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발의 취지였다. 내년 정부 예산에 사직단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니,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이 이제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직단 복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주체들이 추진해왔다.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재청, 예음 등이 복원구상 및 계획안을 만들었고, 부분적으로 사직단 정비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직단 복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단의 복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광화문광장 등 중요한 도시프로젝트는 구상이 마련된 후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사직단 복원 프로젝트의 분위기는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창경궁과 종묘 옛길이 복원 중이고 북촌, 서촌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의 고유한 역사문화 환경의 재발견은 문화소비 욕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독 시민의 관심을 덜 받아온 사직단이 관심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은 향후 과제일 것이다. 사직단 복원은 단지 제례공간을 복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도심 역사문화 환경을 재편하는 기획이기에 도시적 조망이 요구된다. 본 발표는 사직단 복원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왜 사직단을 복원해야 하는가의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공간재편 구상과 실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직단 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사직단의 복원의 문제는 다른 역사문화환경에 비교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아마도 남아있는 건축물이 별로 없기도 하고, 공간의 성격 상 비워있는 제단의 존재가 잘 인식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사직단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가 떨어지는 측면도 존재할 것이며, 제례라는 행위가 현대의 일상생활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직단은 종묘와 더불어 조선 왕조의 정신이 투영된 상징적 장소이다. 우리 민족이 공유하던 집단 기억이 담긴 성스러운 공간이다. 사직단은 조선왕조가 백성과 함께 하늘과 땅을 향해 제사를 드리던 열망이 담긴 장소이다. 사직단은 우리의 집단 기억이 응축된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이 기억이 파괴되었다. 기억할 대상과 터전의 소멸은 한 도시를 온전하지 못한 절름발이로 만드는 일이었다. 사직단의 복원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기억의 터’의 복원은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소멸된 현재에 새롭게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피에르 노라는 장소와 의례, 그리고 상징물을 ‘기억의 터’ (lieux de memoire)라 표현하였고, 이러한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농경사회의 생생한 진짜 기억이 근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관습화되고 제도화되는 기억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역사적으로 집단기억의 파괴의 사례들을 많다. 침탈과 전쟁 그리고 테러 등으로 장소를 파괴하면서 거기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과 기억을 소멸시킨다. 친숙한 사물과 공간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근간이 되는 기억으로 추방당해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잃어버린 공간을 온전히 복원시키고 하고 때로는 이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고 경계하자는 공유의식의 표현이다. 사직단 복원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찾고 공동체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III.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복원하는가?

다른 도시들은 훼손된 역사문화 환경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들을 어떻게 추진할까? 추진 과정의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두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논란 속에 있던 프로이센 황궁(Berlin's royal palace)의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프로이센 황궁은 15세기에 건립되어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거처로 사용되다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프로이센 황실의 궁으로 사용되었으며, 프로이센 제국이 멸망한 뒤로는 미술관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 황궁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파괴되었고, 동독의 공산 정권이 프로이센 황궁을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난하면서 1950년 동독 국민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버렸다. 이렇게 파괴된 프로이센 황궁의 자리에는 동독 국회의사당인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 세워졌다. 그런데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복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많은 논란 끝에 2011년 총 4억 7800만 유로(약 7237억원) 규모의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년 6월부터 복원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즉 논의의 시작부터 복원공사의 첫 삽을 뜨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우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황궁복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001년 학자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황궁복원 캠페인인 ‘슈타트슐로스 베를린 이니셔티브(Stadtschloss Berlin Initiative)’가 시작되었고, 베를린 황궁의 복원이 단순히 과거 황실공간의 복원 차원이 아닌 독일 시민들의 황궁을 복원하는 것에 있다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까지도 복원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한 과정이 황궁 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황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건축물 복원과 복원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 복원 계획은 시민들의 도시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방향아래 업무에서부터 여기활동까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물리적 건축물 복원에 있어서는 3면의 파사드에는 당시의 바로크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슈프리 강을 바라보는 1면은 현대적 스타일의 재해석을 통해 콘크리트와 유리를 사용한 복원이 이루어진다. 복원 이후 활용을 위한 주요 내부시설로는 전시 공간, 레스토랑, 극장, 영화관, 대강당, 도서관 등의 조성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황궁을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역사적 건물을 모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베를린 황궁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베를린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역사 문화유산 복원의 또 하나의 사례로는 중국의 건복궁 복원을 들 수 있다. 건복궁은 청나라 전성기였던 1740년에 자금성 서북쪽에 세워졌으나 1923년 화재로 소실된 채 75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2005년 홍콩 개발회사의 한룽그룹(Hang Lung Group)의 대표 로니 찬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중국문화유산보존기금’의 기부로 복원됐다. 이때 건복궁 복원에 가장 중심에 있던 로니찬이 중시한 것은 복원의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다. 그는 관인 고궁박물관과 민인 중국문화유산보존기금이 협력하는 건복궁 복원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고궁박물관은 설계와 공사를, 중국문화유산보존기금은 경영과 소프트파워 부문을 담당했다. 또한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복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옛 사진, 그림, 문서 등을 아카이빙 하였으며, 문화재 복원 경험이 풍부한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건복궁 복원을 맡게 된 장인들의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력체제로 복원된 건복궁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복원계획에서 외부는 18세기 양식을 그대로 복원하되, 내부에 한해서는 귀빈을 위한 전시, 리셉션, 회담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이다. 즉, 복원 이후의 활용방식이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현재 건복궁은 고위관료, 부호들만 출입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초회화 프라이빗클럽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알려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건복궁 사례는 18세기 양식을 훌륭히 복원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재의 물리적 복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복원 이후의 활용방식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사직단 복원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복원 전략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단은 재실 공간 및 인왕산 자락의 녹지공간까지 총 55,900m²의 범위를 포함한다. 이 부지 내에는 현재 사직단, 한양성곽, 황학정 등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관할의 기관건물과 사단법인 황학정 소유의 국궁전수관 등 다양한 건물과 체육시설들이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직단의 역사적·장소적 맥락과 경관을 훼손하며, ‘사직공원’이 아닌 ‘사직단’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사직단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간과해왔던 것은 아니다. 넓게는 서울 도시 차원에 서부터 좁게는 사직단 자체의 보존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이 있어왔다. 우선 서울시 차원의 고민을 살펴보면 2008년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09년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2년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서울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성곽 복원과 더불어 사직단의 물리적인 원형복원과 사직대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직단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1985년 서울시의 「서울 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부터 2003년 예율의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 그리고 2008년 종로구청의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까지 사직단 복원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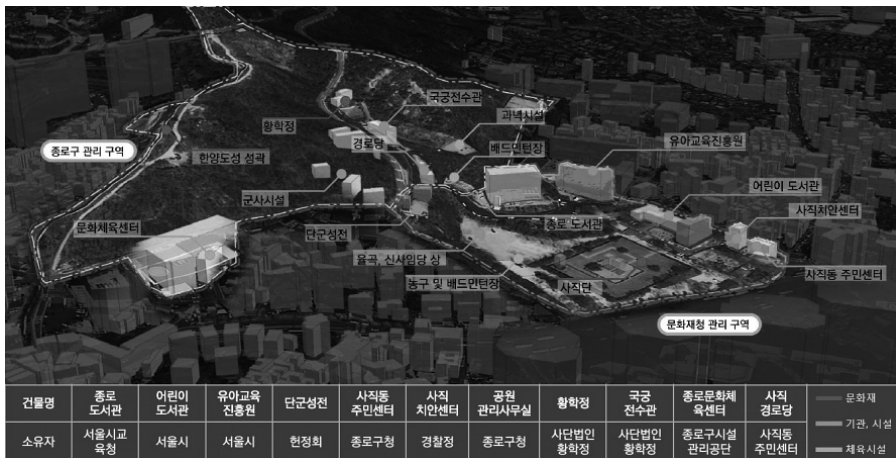


그림1) 사직단 구역내 시설 및 소유 현황

사직단 복원에 대한 계획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985년 서울시는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그림 2)을 수립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원형을 복원하고, 남아있는 유구와 유지를 보존하기 위해 사직단 지역에 대한 고증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직서 구역(현재 사직동 주민센터, 어린이 도서관 일대)을 포함하는 35008m²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이 구역 내의 어린이도서관 및 기타건물의 철거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재실 구역 및 사직서 구역 관아건물의 복원과 그 주변 환경의 정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사직단 원형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예율의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그림 3)은 배후녹지와의 연결성을 높여 사직단의 장소성을 회복하며, 제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영역성을 확보하여 사직단의 체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계획안으로는 가장 엄격하며 총체적인 복원을 지향하는 1안부터 복원의 현실성을 반영한 보다 완화된 3안까지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1안에서는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황학정, 사직동 관리사무소 등 사직단의 성격과 무관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제실 구역과 사직서 구역의 원형을 복원하여 인왕산 녹지축과 사직단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안은 기타시설 철거에 대한 내용은 1안과 같이 하면서도 제실구역과 사직서 구역의 복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격식 있는 휴식공간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안은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황학정 등의 시설들을 존치시키되 해당 건물의 입면을 정비하며, 체육시설이 설치된 기존 공원영역을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이 및 체육시설이 조성된 ‘사직공원’에서 조선왕실의 제례공간의 의미를 갖는 ‘사직단’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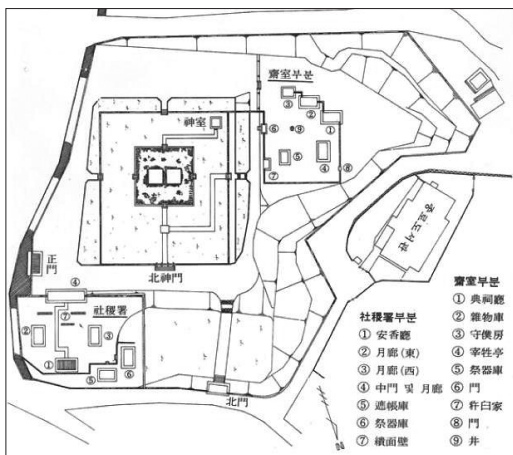


그림2) 1985년 서울시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의 복원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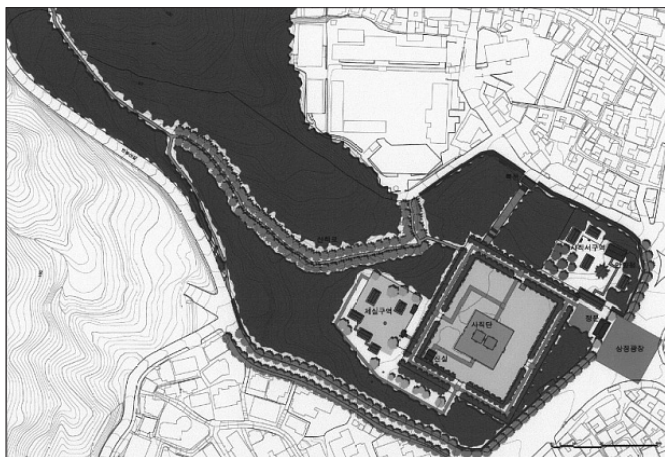


그림3) 2003년 예율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의 1안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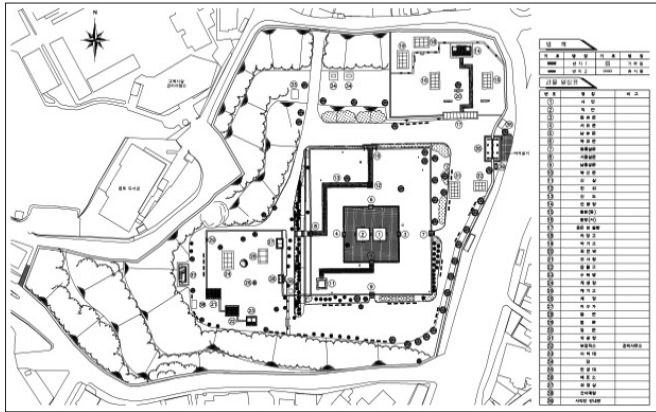


그림4) 2008년 종로구청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의 3단계 계획도

2008년 종로구청의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그림 4)은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로 서?동?남측 구역 시설물의 철거 및 외부 원장 복원, 2단계로 재실구역 복원, 3단계로 북측 구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직서 구역과 ?외부 원장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각종 체육시설 및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영역을 우선적으로 비워내고, 최종적으로는 재실구역 및 사직서 구역을 복원하고 각종 기관의 시설을 모두 이전시켜 사직단의 역사성 및 인왕산 녹지축을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85년부터 제시되어온 사직단 복원 계획안들은 성과와 한계를 모두 보여 왔다. 우선 세 계획안 모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등의 기록을 통한 고증과 현재의 훼손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자료화하였다. 특히 1985년 계획안의 경우 이 안을 바탕으로 1987년 사직단의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2008년 종로구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변경지정과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사직단 정문→대문), 문화재구역 지목변경(공원→사적지)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율의 경우 시민단체로서 사직단 복원에 대한 문제점과 의미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2003년 포럼개최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직단 복원의 문제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1985년 복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국궁전수관, 단군성전, 어린이놀이터, 동상 등 사직단과 무관한 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져 사직단의 훼손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철거를 제안한 건물들은 현재까지 계속 존치되어있다. 또한 세 계획안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제실 및 사직서 영역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1987년 이루어진 정비 수준의 복원을 제외하고는 사직단의 역사성을 회복시킬 만한 실질적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존의 성과마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립예정인 문화재청의 종합정비계획 등 향후의 사직단 복원계획이 반드시 담아내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2003년 예율의 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듯 장기적인 계획 틀 속에서 사직단의 입지적 의미를 담고 있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인왕산과의 연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에서는 창경궁, 창덕궁으로부터 주산인 북악산에 이르는 궁궐 축을 중요시되고 있듯이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사직은 사직단에서 우백호인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배후녹지의 복원을 큰 비전으로 삼고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직단의 입지적 의미를 되살리는 일은 사직단의 원형복원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상실된 사직단 장소의 기억을 회복하고, 한양도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인 종묘·사직을 복원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김봉렬 교수는 사직단 주변 자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래의 지형, 인왕산의 경사면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원된 지형에 숲을 만들어야 한다. 불규칙 경사지 속에 나타나는 정방형 평면의 땅, 울창한 숲 속에 한줄기 길만 뻗어있고 길을 따르다 보면 숲 속의 빈터가 홀연히 나타난다. 그곳이 사직단이고 신성한 역사의 땅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장기계획은 실행에 까지 20-30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몇 년 내에 사직단 주요 공간을 복원하는 중단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사직단에서 인왕산 능선에 이르는 범위에는 체육시설, 울곡이이·신사임당 동상,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비,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경로당, 국궁전수관, 황학정 등이 위치하고 있고,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위의 시설들은 각기 다른 주체들이 관할하고 있다. 사직단의 녹지축을 되살리는 일은 결국 위 시설들의 이전까지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의 계획안들이 이러한 시설들의 철거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순히 철거하여야 할 시설 명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게 되며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실행주체들의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현실적인 이전 부지를 선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존재하는 시설들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변의 도시기능과 사직단과 관련되는 콘텐츠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V. 사직단 복원과 관련된 쟁점들

사직단 복원에는 여러 계획 이슈가 등장하고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공론의 장을 통하여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다. 첫째, 현재 사직공원과 인근 시설의 활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중기계획의 경우, 주민센터, 치안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의 시설의 이전을 위해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도서관 철거를 대비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하니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장기계획에 포함된 이전 대상인 종로도서관, 경로당, 국궁전수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전체 부지의 복원계획에 사직단의 장소성과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변 도시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사직단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농업문화의 콘텐츠를 담은 공공적 기능도 일부 수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상적인 삶의 지층도 존중하면서 과거의 공간을 복원하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직단 복원 이후 활용의 문제이다. 사직단이 복원되면 사직대제의 재현을 위해서 사직제약 등과 같은 악무의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직제는 악·가·무가 결합된 유교 의례의 정수를 담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인 의례를 복원하는 것은 단절된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제례의 식만 거행하는 것보다 공간의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사직단 일대의 공간을 국악, 한국무용의 공연장 및 한국복식을 선보일 수 있

는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활용 구상도 복원계획에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는 사적단 복원의 자원 마련의 문제이다. 현재 중기 복원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은 약 1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규모도 종로구청, 서울시 등의 시설 이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전제이다. 나아가 장기 복원계획을 실현하려면 시설 이전이나 신축, 그리고 숲의 복원 등에 따르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재원을 국가예산에서만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통하여 복원이 추진되는 경우를 참조할 만하다. 자원 마련에 있어서도 시민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후의 활용 및 운영관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적단 일대가 복원되면 이 공간을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초기 기획의 자원마련을 위한 Fund Raising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넷째는 사적단 복원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문제이다. 문화재청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종로구청, 서울시 교육청 등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적단 복원의 중요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체계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여러 정치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여러 주체의 협력의 장을 예울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민간이 주도가 되어 복원의 필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기금도 모으고 민관이 함께하는 가치 ‘사적단 복원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V. 나가며

사적단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시험하는 일이다. 잃어버린 역사문화 공간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의 원래 지형과 숲을 복원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사적단 일대가 복원되면 한양도성 길에서 면적인 역사문화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된다.

사적단 복원은 서울 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공간가치를 제고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적단 일대는 향후 서촌역사문화 지역이 확장되는 거점이 되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경복궁 동측의 문화밀집지역과 북촌 일대와 공간적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왕산-종묘-경희궁에 이르는 자연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고, 종묘-경복궁-사직으로 역사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단 복원 과정이 우리 사회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랜 역사 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문식, 김지영, 박례경, 송지원, 심승구, 이은주(2013). 『조선 왕실의 행사 1-왕실의 천지제사』. 경기: 돌베개.
- 서울시(2008).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서울시(2012).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 서울시(2009).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 예을(2003). 『서울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안』. 2003년 6월 13일, 서울
- 예을(2003).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
- 중료구청(2008). 『서울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 보고서』.
- Bevan, R., 나현경(역)(2011). 『집단기억의 파괴』. 경기: 알마
- Nora, P. et al., 김인중 외 3(역)(2010). 『기억의 장소』. 경기: 나남
- Stephens, S., Pearson, Clifford(2008). "THREE: JIANFU PALACE GARDEN Beijing, China," Architectural record, 196(7): 144.
- 강찬호, "국보급 문화재 복원, 비공개·민관합작이 성공 비결," 『중앙일보』 (2013년 11월 11일).
- 김원, "환경에세이 사직단을 복원하라," 『동아일보』 (2009년 10월 28일).
- 나승렬, "이렇게 생각한다면 농업 氣 복돋울 사직단 복원 환영," 『매일경제』 (2012년 8월 3일).
- 오애리, "베를린 '프로이센 황궁' 복원... 새 관광명소 될까, 세금먹는 하마 될까," 『문화일보』 (2013년 06월 20일).
- 이창현, "홍상수 감독과 사직공원?" 『서울타임즈』 (2013년 5월 17일).
- 조용성, "프라이빗클럽 논란에 자급성 "관리업체가 추진한 일" 네티즌 "발뺌 마라"," 『아주경제』 (2011년 5월 17일).
- 홍찬식, "홍창식 칼럼 사직단과 종묘," 『동아일보』 (2013년 7월 31일).
- Alexander, H., "Berlin begins reconstruction of King Frederick the Great's palace," Telegraph (2013, Jun 12)
- Hickley, C., "Berlin Palace Rebuilding Begins 63 Years After Explosion," Bloomberg (2013, Jun 12)

토론

사회 김성우 교수/연세대

토론 송인호 교수/서울학연구소 소장·이코모스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홍찬식 논설위원/동아일보

로버트 파우저 교수/서울대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토론 I

송인호 교수 / 서울학연구소 소장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사 직단은 궁궐 종묘와 함께 조선의 수도를 표상하는 ‘도시유산urban heritage’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크게 훼손되었고, 지형과 도시맥락이 단절되었으며, 의례공간으로서의 생명력이 소진되었습니다. 2003년 6월 재단법인 예율이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주관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직단의 가치와 위상을 함께 공부하고, 회복을 위한 실천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다시 재단법인 예율의 주관으로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 사직단 복원과 활용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직단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고는 하나, 2003년 포럼에서 제안된 [서울 사직단 복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안이나, 2008년 종로구청에서 수립한 [서울 사직단 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에 비추어 보면 사직단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 통하여 사직단 일곽의 변천과 성격, 사직단 제례의 위상과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사직단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세 분 발표자 선생님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사직단의 유산가치와 위상회복에 대하여 ‘도시유산’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사산과 서울 한양도성¹⁾, 궁궐과 종묘와 사직, 대로와 시전행랑, 물길과 도시조직을 연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사직단은 육조대로에서 이어진 길의 정점에 인왕의 능선이 멈추어 선 자리, 곧 ‘지형과 도회의 접점’에 세워진 도시유산입니다. 한편 인왕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사직단을 마주하면, 지형을 평탄하게 다스리고 그 위에 단을 축조한 비워진 형태가 감동입니다. 사직단의 영역은 ‘인왕의 지형과 육조거리에서 이어진 도회의 기억’이 회복될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할 때, 수도의 중심공간과 한양도성의 시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별히 백악을 배경으로 육조대로에서 바라보는 경복궁의 경관과 인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사직단의 경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직단 영역에 난립한 건물을 철거하여 ‘의례공간을 복원하는 일’은 곧 ‘한양도성의 경관 city wall landscape of Seoul을 만들어가는 일’과 조응합니다. 이는 ‘유적을 장소인문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유적의 역사적 층위’를 중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사도시경관 접근방식 historic urban landscape approach’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직단이 ‘영역’과 ‘제례’가 정합하여 진정성을 갖춘 도시유산으로 회복되고, 사직단의 ‘위상’과 ‘생명력’이 지속되는 도시유산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 한양도성’은 사적10호의 명칭이다. 이 글에서는 사적 10호로 지정된 ‘서울 한양도성’ 및 멸실 및 매장구간, 국보1호 승례문, 보물1호 흥인지문을 아우르는 ‘한성부’의 도시성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전체 길이는 18,675 km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는 ‘Seoul City Wall’라는 영어명칭으로 등록하였다.

토론 II

홍찬식 수석논설위원/동아일보

최 근 문화재청장이 경질됐다. 송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송례문이 화재를 당했을 때 국민들의 애통함은 컸다. 송례문 공사를 마치고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다. 이런 일들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사직단을 복원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복원의 필요성, 사직단 복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종묘와 비교해 사직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국민에게 사직단 복원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대부분 공감할 것이 확실하다.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직단 복원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직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직단 복원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 운동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직단이 복원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완성도를 만들어 홍보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아직은 힘이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문화재청이 해마다 벌이는 복원 사업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직단 복원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경복궁 복원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사업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 탓이다. 최근 문화재청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은 6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0.2%도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 5조원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은 액수다.

반면에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일은 광범위하다. 문화재청의 상위 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보면 9개 분과 위원회가 있다.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 문화재, 세계유산 등이다. 각 분야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문화재청은 ‘소방적 문화재 관리’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소방서가 불이 난 뒤 끄기 위해 출동하듯이 문화재에 문제가 생기면 처방을 내리는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복원 문제는 우선순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복원 사업 중에 ‘서울 옛 모습 찾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고궁을 복원하고 서울 성곽을 회복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직단 복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직단 복원을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됐든, 다른 프로젝트가 됐든 문화재청 사업에 포함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중요한 복원 대상이 된다면 예율이 벌이는 일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직단 복원은 장소가 도심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경우 1997년 발굴 사업이 이뤄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미 복원을 결정했으나 지지부진하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직단 복원은 풍납토성 복원과는 사정이 다르다. 지리적으로 경복궁 서촌 등 대표적인 관광 자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원을 하더라도 주변과 연계해 경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토론Ⅲ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사직단은 한성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의 하나이며, 한성을 조성할 당시 주례고공기의 좌묘우사(左廟右社)에서 사(社)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한성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시설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상징성과 함께 사직대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직단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직단 터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과거 재실구역과 사직서 등 관아건물을 지속적으로 회복하여 사직단이 갖는 원형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최근의 역사보존정책이 단순한 시설보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맥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왕산을 등지고 자리잡은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은 인왕산의 녹지축 회복을 통한 장소성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물론 이들 점유시설 대부분이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점유되어 있는 공간을 회복하는 것 보다는 수월할 수 있으나, 각 시설들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고, 대민시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존 점유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경계를 표시하여 영역성을 알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를 끌어내어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가야 한다. 각 시설의 이전부지와 이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관련부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회복방법에 대해서는 사직단이 갖는 제례적 성격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원형을 회복하여 그 의미를 전승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시된 바와 같이 사직단이 갖는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회복하는 방법도 열어놓고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직단 가는 길도 사직단의 회복대상에 포함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길은 경복궁 뿐만 아니라 조선조의 왕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창덕궁에서 왕이 사직단 제례를 위해서 행차했던 공간으로서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를 통해 판단할 때 종로, 남대문로, 돈화문로 등 대로 다음으로 넓은 중로로서 16척(5m) 정도의 폭을 갖는 주요 도로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확장되어 옛길의 정취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길이 갖고 있는 선형과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옛 가로와 형태를 표시하고, 주변 건축물 및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어간다면 사직단의 장소성과 의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사직단의 정면성이 부각되어 도시구조 속에서 사직단이 갖는 위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옛 지도와 지적원도를 통해 판단할 때 사직단 길은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백운동천으로 연결되는 옛 물길이 같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취와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옛 길과 물길을 같이 고려하여 회복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맥락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직단이 갖는 장소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